

권 철 현 한나라당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권 고 결 의 문 (안)

의 안 번 호	271
------------	-----

발의년월일 : 2001. 6. .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주 문

지난 6월 3일 권 철 현 한나라당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목포 앞 바다에 목이 떠다닌다”는 망언에 대하여 심히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가 없어, 26만 시민을 대표하여 목포시의회의원 일동은 권 철 현 한나라당 대변인의 망언에 대하여 권고 결의문을 채택 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지난 6월 3일 권 철 현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목포 앞 바다에 목이 떠다닌다”는 망언에 대하여 심히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고, 목포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참으로 뼈아픈 분노와 슬픔을 느끼며, 이러한 발언이 공식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것은 개인의 우발적, 충동적 발언이 아니라 사전에 당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나온 발언이라고 여겨진다.
- 역사적으로 볼 때 공당의 대변인이 특정 지역을 지정 비하하고 매도하는 것은 지역감정을 유발하여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알박한 술책에서 계산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되며, 이러한 처사에 실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이에 우리 목포시의회의원과 26만 목포시민은 권 철 현 대변인의 망언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삼키며,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이러한 비극적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임.

권 고 결 의 문

우리 목포시의회의원 일동은 지난 6월 3일 권 철 현 한나라당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목포 앞 바다에 목이 떠다닌다”는 망언에 대하여 심히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그 자질과 인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발언이 공식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행하여 졌다는 점에서 개인의 우발적, 충동적 발언이라기 보다는 사전에 검토되고 계획된 발언이라고 여겨지며, 26만 목포시민은 더욱 격분을 느낌과 동시에 한나라당과 그 대변인에 대하여 서운함과 애석함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발언이 혹시라도 지역감정을 유발하여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알박한 술책에서 계산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져 들며, 이는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도 목포지역민만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통일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 사례가 다른 지역에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곡한 입장을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할 책무를 느낀다.

이에 우리 목포시의원과 26만 목포시민은 권 철 현 대변인의 망언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삼키며,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결의를 다짐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정중히 권고한다.

1. 목포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권 철 현 대변인은 “목포 앞 바다에 목이 떠다닌다”는 발언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 공식 공개 해명하고 목포시민에게 사죄하라.
1.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특정지역을 집단으로 비하하여 교묘한 술책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한 권 철 현 대변인은 향후 제1야당답게 품위 있는 언행을 약속하고 즉시 국민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1. 이 회 창 총재는 공당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2001. 6. 8

목 포 시 의 회 의 원 일 동